



National Covenant, 1638

## 교회개혁을 위한 역사단상 2

#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김종락

본 역사단상은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역사에서 얻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역사학자인 저자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를 통해 현재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상황을 인내로운 시각으로 지시하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종교개혁 직후 스코틀랜드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모든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개혁사는 한국 교회가 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연대 순서

1.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2.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3.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 스코틀랜드 국민언약

1638년 2월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의 그레이트 그레이스(Greyfriars) 교회에는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목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의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모였다.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 레이프라이어스 교회 담임목사이자, 그해 글래스고 우 총회의 총회장을 맡게 될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이 초안한 것이었다. 이 문서가 소위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National Covenant)」이다. 참석한 이들은 환희의 눈물로 언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의 사본은 전국 각지로 보내졌으며, 8월 말까지 일부 고지대(Highland)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각 교회 교인들은 「국민언약」에 서명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언약운동은 1630년대 국왕 찰스 1세의 친 가톨릭 정책에 대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의 대응이었다. 「국민언약」에 서명한 사람은 이후 국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언약에 들어간 것이었다.

사실 「국민언약」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맺은 언약은 아니었다. 최초의 스코틀랜드 국민언약은 「부정교백(the Negative Confession)」이라 불리는 1581년의 언약이다. 「부정교백」은 당시 가톨릭 세력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던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부정교백」은 교회에 대한 왕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 1578년의 「제2권장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를 지키고자 한 언약이기도 하다. 「제2권장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핵심, 즉 장로교 정치(polity)를 규정

한 것이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1603년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함)는 이러한 장로교 운동에 반발해 교회에 대한 왕의 통제권을 확고히하고자 하였다. 즉 「부정교백」은 가톨릭 배척 언약인 동시에 장로교 수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81년 「부정교백」과 1638년 「국민언약」은 공통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이 지켜야 할 언약의 목표는 ‘가장 잘 개혁된’ 그들의 장로교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두 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수호를 위해 언약 문화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1638년 「국민언약」은 1581년 「부정교백」의 갱신이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 인들은 언약 뿐 아니라 언약의 갱신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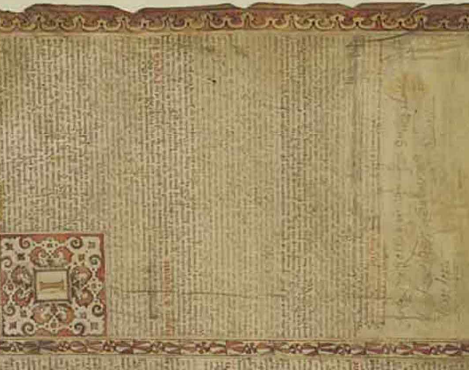
### 스코틀랜드 언약문화의 유래

그러면 16-17세기 스코틀랜드 국민의 언약문화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1638년 당시 스코틀랜드 언약운동의 지도자이며, 변호사인 아치발드 존스톤(Archibald Johnston of Warriston)은 4월 19일 일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유일한 두 나라인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유사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전 국민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민족은 스코틀랜드 국민이 유일하다. 스코틀랜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흉내 내어 「국민언약」에 들어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문화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신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신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신의 선민이 되었고, 그들의 국가는 언약국가(Covenanted Nation)라고 믿었다. 「국민언약」 직후 후

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에 스코틀랜드 특사로 활약한 사무엘 러터포드(Samuel Rutherford) 목사는 "오! 스코틀랜드, 그대 이름이 성경에 기록 되었음을 감사하라"라고 외쳤다. 러터포드에게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언약(Covenant)은 구약성경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민족 또는 특정 인물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였다. 대개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며, 선택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만일 불순종한다면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또는 '내적' 언약과 하나님과 전 국민 간에 맺어지는 '연방적' 또는 '외적' 언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국민언약'이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국가교회의 전 구성원 즉 국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 구약성경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차례 연방적 언약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맺은 국민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열왕기하 23장).



National Covenant

포함 언약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엄중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약속은 아무런 언약이라 칭해도 그것은 인간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열강

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언약이라 칭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였다. 그 언약은 즉시 깨졌고 인간은 수십 배나 참혹한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1638년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결속된 힘을 형성하였고 이후 국왕의 무력침공에도 굴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지켜낼 수 있었다. 1638년 8월에 열린 글래스고우 총회는 지금까지 국왕이 마음대로 교회에 도입한 가톨릭 제도를 일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치벌의 위험을 무릅쓴 결정이었다. 그들의 언약은 스코틀랜드의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 청교도를 고무시켰고, 그들 역시 언약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위대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낸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시 이러한 지점을 역사에 남겼던 것이다.

1630년대 스코틀랜드 교회는 외부의 힘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말했듯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1630년대 스코틀랜드 교회는 외부의 힘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말했듯

이 외부적 도전보다는 내부적 도전이 더 무서운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돈과 권력에 취해있으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반하는 무서운 성직주의에 젖어있다. 강단은 복음과 진리 대신 억지와 광대놀음과 무례로 가득 차 있다.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치명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을 어찌 짚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오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올바른 궤도에 다시 올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부재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시 개혁해 나갈 힘이 부재이다. 우리는 넘어져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다.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아야만 한다.

1638년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국민에게 힘을 부여한 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였고, 그들이 그릇게도 굳게 믿었던 '가장 잘 개혁된 교회, 장로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언약은 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7세기 스코

틀랜드를 모방하여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민족 차원의 언약에 들어가자는 예기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어찌 국민언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국민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동일한 구성원이었다.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언약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고 한국교회 각 교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감으로 가능하다.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언약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 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 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가 선민이듯이 우리도 선민이며, 그들이 언약국가였듯이 우리의 교회도 언약교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단마다 개인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다.



김종락 영국 켈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육교학과 교수이다. (사)특교계관현동역회 지부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문화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